

성경의 맥을 잡아라 - 11강

(토) 2004년 5월 15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15/1)·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셨음. (창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또한 네 몸에서 낳자라 (별같이 많이 셀 수 없는 자를 주겠다고 하셨음. 사라가 꾀를 내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음.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7) 소동과 고모라 심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심. (창18/1)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두 천사를 소동과 고모라로 파송하심. (창18/1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롯이 있는 소동과 고모라를 유향 불로 멸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심. (창18/20)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 심판 때 남은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비즈니스맨답게 하나님과 nego(?)를 함.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의인 열 명이 없어 심판하심.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과 그 가족을 남기심.(남은 자)

-음란 죄로 인한 심판 > 부분적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동과 고모라를 왜 심판하시는가?

음란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고전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성령의 전)을 창기와 결합하겠느냐? 다윗이 밋세바와의 범죄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했듯이, 음란 죄를 범한 경우 즉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함.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고전5/1,5)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1)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5)

·부분적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까지 미루시겠다고 노아 홍수 후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부분적인 심판을 하심. (예) 출애굽 후 광야에서 끊임없이 패역하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려고 우리 안에 찾아 오셨으나 몸으로 계속 범죄하는 자는 그 더러워진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어 (병들고 사망하는 것) 그의 몸은 죽이되, 영혼은 마지막 날에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임 (죽은 후의 심판권은 주님이 갖고 계심.)

·간음죄-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

-죄를 지으면:

(1) 반드시 회개해야 함.

a) 믿는 자: 회개기도 (나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주님께 고백해야 함)

b) 불신자: 죄=내의식이 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느냐?

절대 못함. 그러므로 죄를 느끼지 못함. 끊임없이 내가 잘났다고 함. 내가 무슨 죄가 있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도 못하는데· 죄=내 의식이므로 내가 움직이는 자체가 죄이나 깨
 닫지 못함. 죄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 다른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의식이 있어야 함.
생명과=생명의 떡=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내 속을 비추어 줄 때만이 죄를
 깨달을 수 있음.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이 이야기한대로 네 눈이 밝아져서 (밖으로
 내 눈을 밝히므로)내 안의 죄는 안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만 보임. 문제는 예수 믿는
 다고 말로 하면서, 말씀을 진정으로 먹어서 내 안에 집어넣어서 (진짜 성령이 임재하여) 완전
 히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날마다 말씀먹지 않으면 선악과
 먹고 남의 허물만 탓하게 됨.

(2) 기독교는 말장난 아니고 행위를 고치는 것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이므로
 진정으로 영으로 회개할 때) 가슴으로 느낄 때, 새 생명을 주셔서 행위를 고치게 되는
 것 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치심 (불 지짐으로 내 마
 음을 찍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하나 되기 시작함. (고후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
 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
 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그래서 변화되어 가자!! 내 삶을 말씀으로 거룩
 함으로 바꾸었더니,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서 느
 껴지는 것임. 그 때 내 삶이 확 변하는 것임 (=거룩해지는 것임-세상과 구별됨) 나 주님
 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행실이 바뀌어서 내 삶이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네가 가던 길을 돌이켜 내 말씀에 순종
 하여· 정말 힘들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기뻐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꺄고 칭찬해 주심. 이러한
 변화를 바라며 말씀전하는 것 입니다!! 다투은 밧세바 사건에서, 완전히 회개하여 자유함이
 있었음. 완벽한 회개 이후 완벽한 삶의 변화와 축복이 있음.

-인간관계는 성경이 정해진 말씀관계(가정, 직장, 교회)를 벗어나선 안됨.- 교회 다닌다면서
 마음 속에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담고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
 야 함>이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해도 어두움(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음.

-룻이 경고(두 딸/두 사위/아내) > 두 사위가 비웃음. (창19/14)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
 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룻은 평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문제가 많
 은 사람이었음. 그러므로 나의 삶이 영과 육으로 깨끗함을 입어, 날마다 날마다 열매 맺고
 자라야 함. 룻은 재산축적 했지만 다 빼앗겼음. 이 때라도 약속의 땅 (헤브론)으로 가야 하
 는데, 그 쪽으로 안감 (계속 보이는 것만 추구함) 결국 아내도 그 재산/재물이 아까워서 뒤
 돌아보므로 사해바다의 소금기둥이 되었음.

-평소 신앙에 문제 있는 룻은 심판 후에 사고 침.

·조그만 성에 가서 피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심. 룻과 두 딸만 남게
 됨. 이 때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안 돌아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
 지 못함.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딸들이 술 취하게 하여 아버지와 성 관계>첫 딸(아버지)
 에게서 모압, 둘째 딸(아버지)에게서 암몬이 나오게 됨. 이방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심. 하나
 님께서 출애굽 시켜서 나올 때, 다른 이방인들도 10대 재앙을 보고 나왔는데, 이 두 족속은
 여호와와 Assembly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심. 육신의 몸이 더러운 것에 하나님께
 서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알아야 함.

8) 이삭의 출생

(1) 출생예고

-75세에 하란 땅 세겜에서 언약을 주신지 24년 후에 (99세) 이삭 이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아들을 줄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심 [웃었음] 육신적으로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을 10년 전에 보았는데·(롬4/17)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세 천사로 나타나서 재차 약속하심. 사라야 어디 있느냐? 사다가 뒤에서 들고 있으면서 피식 피식 웃고있는 것 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사라는 안 웃었다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웃었음. 그렇지만·하나님은 약속을 바로 이행하셨음.

-바로 잉태함. 100세에 이삭을 출생함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심.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삭이 출생한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때야 무릎을 완전히 꿇음.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그러므로 **복음은 체형임**.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가운데 아브라함 만큼 자주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해 주신 인물이 별로 없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음. 그래도 안 믿었는데 진짜 주니까 그때야 완전히 무릎 꿇고 깨짐.

(2) 번째로 드림 번째드렸을 때까지 이삭을 키우는 과정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애지중지 하였겠는지 짐작할 수 있음. 언제까지 자랐을 때 드린 것인지는 안 알려져 있음.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준 것은 이삭만 의지하라고 준 것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것을 보니·그래서 드리라고 하셨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면서, 날마다 그 보물단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고민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곳이 없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창22/12)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옆의 수양을 잡게 하시는, 재물까지도 먼저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보면, 아이가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함과 놀라움이 있었으므로,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심을 믿는 그 강력한 믿음 (죽이라고 하셨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이 있었음. 사도 바울은 롬4/17절에서 이 마음을 표현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과정에서 모든 인류에게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을 보여주심. 75세에 부르시고 25년 간 훈련시키셔서 100세가 되어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몇 세에 바치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175세 되어 죽기까지 나머지 여생을 충만하게 채워주심. 이는 십자가 뒤에는 엄청난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것임.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주시고, 정말로 많은 자손을 주심.)

*족장들의 이야기는 [나]와 [내 것]을 계속 버리는 것임. 버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주심.

*이삭을 바치기 전, 이스마엘(14세)이 이삭을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하심. 평소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위하여 엄청난 기도를 하였음. 86세에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정말로 사랑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버림. 하나님은 내가 평소에 네 기도를 너무 많이 들었다. 절망 말라, 그도 네 자손이다. 12 방백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니 걱정 말라 고 하심. (창21/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니라 하신지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해주심 (자신의 뼈와 살인 아들까지도 버렸으므로.)

2. 이삭

-내 주장 포기한 사람 > 부모에 전적으로 순종

(아들 하나님=예수님을 상징)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지고 갔고, 아버지에 대항하지 않는 엄청난 순종을 보임.

-우물을 많이 파고/농사, 부를 축적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해주는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

-애굽 행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심 (창26/2-3) ·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2)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3) 너 이땅 떠나지 말라. 이 땅은 네 아비 아브라함

때부터, 너와 네 자손에게 주려던 땅이었다.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다시 해 주심.

3. 야곱 (내 주장이 엄청 강한 사람)

(1) Jacob (뱃속에서부터 경쟁: 장자가 되려고..) 아집, 명예욕, 물질 등 오늘날 사람들이 갖

고 있는 모든 욕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의 훈련과정을 보게 됨. 히브리 장자 권은 다른 형제의 2배를 받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은 반칙임

(예)레슬링(중동에서 유래)에서 유일한 반칙은 발목 잡아 당기는 것임.

-Jacob (반칙하는 자/속이는 자-사기꾼),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내 것 조금 더 챙기겠다고 하는 것임. 이런 사람이 성경에 써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형 속이고 (장자 권 뺏음)/ 아버지 속이고 (축복 뺏음)

·축복의 내용-a) 양식/포도주(=재산) 세상적인 축복 b)네 형제들이 너를 섬길 것임(=명예)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은 기껏 재산/명예임.-이런 세상의 별볼일 없는 축복을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뺏어서 온전하냐?, 상대방은 가만 있느냐?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 엄마가 하란으로 피신 시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피곤해서, 돌 베게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심. 항상 우리가 범죄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셨음.

(2)사닥다리 꿈 (벧엘의 하나님)

-죄짓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만 엄청난 은혜로 범죄의 현장에서 만나주시지만, 그 이후에는 엄청난 훈련을 시키심.

-하나님 음성이 있어 가로되, 야곱아, 야곱아, 네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창28/13)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금방 축복을 주심. (네가 돌베게하고 있는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언약 확인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동일한 약속을 주심.)

*가장 임마누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음.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벧엘은 여기가 하나님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로, 돌단 을 쌓음.-하나님께 예배드림.

Beth-EL (Beth:place + EL:하나님): 돌베게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이후에 북이

스라엘이 금송아지상을 만든 곳

-돌단을 쌓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가는 이 길에 (돌아갔다 올 때까지) 나를 평탄하게, 내 생명 지켜서 돌아오게 하면, 벧엘 돌단 쌓은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 (참으로 유치한 수준의 믿음)

·그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작정한 것임. 그래서 조건부로 한 것임.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표시(행위)로 Olive기름을 돌 제단에 부었다는 것임. 그 당시 중동에서 제일 귀한 것이 Olive기름인데, 고대중동의 중요한 화폐였음. 이것을 부었다는 것(버린 것)은 굉장한 믿음임. 먹을 것/입을 것/마실 것을 버렸다는 것임. (일단 돈을 버리고 출발하였음.)

-결국 하나님 손안에 맡긴 것임. 20년 동안 자기보다 100배나 더한 사기꾼 밑에서 훈련 받게 하심. 야곱을 사람 만드시려고 피눈물 나는 훈련을 시키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빼내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밑에서 훈련 받게 하시는 것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관계로 성공하여야 함.

·돈 계산하면 사람이 안 보임 > 부모, 형제, 예수도 안 들어옴.

·돈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임.

·그런데 마음은 사람관계를 통해서 열림 인간관계에는 기적이 일어남.(안될 일이 일어나는..)

a)좋은 기적: 내가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으로부터, 의외의 도움을 받음.

b)나쁜 기적: 평소에 내가 그렇게 잘했던 사람에게, 내가 진짜로 어려웠을 때, 거절 당함.

내가 은혜 받은 것-즉 마음이 열리는 것은 사람(목사님/말씀 전하는 은사자)을 통해서임.

-돈만 계산하면 나쁜 기적 (질병/빼앗김)이 자꾸 일어남. (나도 모르게 막 없어짐.) 돈이 많아서 엄청 즐거울 줄 알았는데·

-현금의 의미: [돈을 드린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고 나만 채우려는 것(나를 주장하는 것)을 버리는 것임. 내 것 비우는 훈련 (=믿음의 조상 만드는 훈련)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것임. 버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것임.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임. 나를 주장하는 사단을 버리는 것임.

십일조를 드리며 나머지 9/10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마귀가 어쩔 줄을 모름.

현금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즉시(금방) 해야 함.-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계산하게 됨. 하나님이 주신 감동(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 돈 많이 버리는 사람 (내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로 정말로 기

뻐

하심. 이럴 때 진정으로 거룩하게 변하는 것임.

-사람환경으로 성공해야 함.

·사람을 돈으로 계산해서 대하지 않아야 함.

·말씀(복음)으로 사람을 대하여야 함. = 하나님 말씀으로 대함. (예수님 마음으로/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함.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 형상으로 변하게 됨.

(마25/40)·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나의 도움을 찾아온 그 사람이 예수님이심.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이 되면,

마구마구 주게 됨.

·인간관계는 말씀관계가 되어야 함. (가정/직장/교회) 그렇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
되

열매가 없음. 진짜 회개하면, 잘못된 인간관계(남편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
는 여인)에서 발을 금방 빼야 함.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으면, 절대로 천국이 이루
어지지 않음. 어두움/미움/괴로움이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상태가
지옥임.성도는 예수의 영으로 Born again 하여 (아기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이
천국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것임. 날마다 변화되어,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을 날마다 이루
어야 함.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함) 이것이 하나
님이 기뻐하는 자임. (요13/34)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을 가지고·) 내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축복의 통로임.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닥다리는 너무 중요한 개념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의 해석은 야곱의 사닥다리를
율법의 행위라고 함.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함.

*영(아버지하나님):보이지않는 사랑>말씀(아들하나님):나타낸 사랑>성령하나님:전달된 사랑

·사닥다리=예수님. 말씀=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모름. 주님은 내가 길
이요/진리요/생명이라 고 말씀하심.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도저히 아버지 하나
님을 알 수 없음. 사람들은 그 하나님 (달라면 주는·) 자꾸 보여달라고 함. (골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움직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이 삶으로 나타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

·성령 하나님: 2천년 전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예수님이 현재도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님 보혜사 성령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심. 따라서 항상 주님을 느끼고, 교
제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항상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말씀 붙
들고 기도해야 함.-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심. 성령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이신 아버지하
나님을 알 수가 없음.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하심. 성령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임.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므로, 성령으로 말
미암아 내 안에 몽클몽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임.

(결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철철 넘쳐흐르도록 느껴져야 함. 이
감격을 느껴보시면,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않고, 성령에 이끌리어 다니게 됨. 그러나 말씀
은 어디까지나 daily bread (일용(日用)할 양식) 이므로, 반드시 하루치임. 기도도 하루치
임.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해야 함.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power, energy 사랑의 에너지)이 나타남. (행1/8) 오직 성령이 너
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energy)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 운동력이 전달됨. 영혼을 찢러 쪼개기도 하고(영혼구원),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도 하는(질병의 치유)것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음. 말씀 통해 나타난 사랑이 성령을 통해 전달된 사랑 (=체험된 사랑=느껴진 사랑)으로 되는 것임.

(빌1/6)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 닮아서 변화되어, 열매 맺고,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하여야 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1000번 이상 시인해보세요!! 말은 영의 통로를 열어드리는 것이므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심.